

민주 “日 강제동원 정부안 철회하라”… 주말 장외투쟁

이재명 “대일 항복문서, 친일매국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 없을 것” 당내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 구성… 배상안 철회 결의안 추진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에도 '제3차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입장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강제 징용 피해배상 해법이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것으로 보고 '대일(對日) 굴욕외교' 프레임에 강화,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대외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이태표 논란 등 내부 갈등을 진화하고 당내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문서”라며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주요 7개국)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제물 삼는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강제 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최

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친일매국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의견과 일본 정부의 사죄가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 전제조건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고,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선의 김상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 차원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국회 차원의 배상안 철회 결의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장외투쟁에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 해법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 참여한 데 이어, 오

는 11일 서울시광장 등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범국민대회) 참석 논의가 있었고, (지도부가) 참석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제3차 변제 방식이 사실상 민주당 소속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한 것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완전 억지 주장”이라며 “2019년 문 전 의장이 낸 아이디어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5대5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한국이)

전부 (배상) 한다는 아이디어가 아니다”며 “당시 문 전 의장 안마저도 ‘반쪽짜리 해법’이라고 해 추진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이 상당한 정치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 등을 내놓지 않는다면 상당한 민심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해법은 민심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여권에선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이번 해법은 국정 운영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김기현 당선, 국힘 내 민주주의 완전히 사망”

“與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 대리 대표 허수아비로 세운 채 근림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국민의힘 정당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임 당 대표 선출을 축하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제 여당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만이 남아 대리 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근림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을 목도하며 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거수기로 세운 채 여당을 좌지우지하며 검찰 기득권당·친일 매국당으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폭정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도 이어졌다. 안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는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으로 도덕적 흠결을 가진 채 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며 “어느 국민이 김 대표의 발언을 공경한다고 여기겠는가”라고 했다. 정희정 당내 수석대변인은 “당선 축하를 먼저 해야 하지만 경제위기, 민생파탄, 외교실패 등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며 “윤심을 만드는 ‘윤핵관’의 힘을 벗어나 민심을 만드는 국민의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규명이 필요하다”며 “‘연포장’ 정치를 표방했으나,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도록 충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힘 ‘불출마 증진’ 전대 이후 행보는?

나경원·권성동·유승민 ‘관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당권도 전을 저울질하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중도 포기했던 중진 3인방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5선 현역인 권성동 의원과 4선 출신의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의 지지 기반과 인지도를 갖춘 유력 정치인이다. 이들은 일찌감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후보 등록 목전에서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히는 권 의원은 친윤계가 김기현 신임 당 대표를 일찌감치 미는 상황에서 용퇴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나 전 의원은 김 신임 당대표를 밀었던 당내 친윤그룹 주류와 대통령실의 견제로 사실상 ‘반강제’로 물러났다. ‘비윤(비윤석열)’ 대표 격인 유 전 의원은 ‘당원 투표 100%’ 룰제정 등 불리한 여건에 스스로 뜻을

접은 측면이 적지 않다. 제각각인 당내 입지와 불출마 배경은 이들의 향후 행보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나 전 의원의 경우, 당분간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개인 차원의 다음 행보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지지기반이 두터운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는 전당대회 초반 최대 이슈였고, 대통령실과 친윤계로부터 집중적인 압박과 견제를 받았다. 이후 ‘김나(김기현-나경원)연대’에 호응함으로써 ‘김기현 체제’에서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당분간은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내년 총선을 통한 여의도 복귀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친하림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등장해 ‘바람’을 일으키면서, 보수 진영 내 ‘비주류’에서 이전만큼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불신 해소·혁신 나서달라”

최대 의원 모임 ‘더미래’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는 8일 “이재명 대표는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더미래는 이날 오전 비공개 토론회 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미래는 현역 의원 50여명이 소속된 당내 최대 연구 모임으로, 주요 정치 현안이나 정책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독자적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우리는 민주당의 신뢰 회복과 혁신, 단결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당의 단결을 위해 당내 여러 의견 그룹과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서의 무더기 이태표 사태 이후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일단 내부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재명 체제’ 유지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더미래는 이같은 입장을 이 대표와 공유하고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이 대표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내홍 수습을 위해 당내 소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5선 중진들과의 오찬에 이어 비공개 모임 ‘민주당의 길’ 소속인 이원욱·윤영찬 의원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3층
공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